

전북연구원 보도자료 **아름다운 山河** 응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북연구원(T.063-280-7100/F. 286-9206)
<http://www.jthink.kr>

- **문 의** : 사회문화연구부 김형오 연구위원
(063-280-7172, 010-9602-1455)
- **담 당** : 연구본부장 김진석 선임연구위원
(063-280-7111)

보도시점 : 2019년 04월 03일(수요일) 부터

관광약자를 위한 전북관광 환경 조성을 통해 모두가 함께 누리는 여행체험1번지를 구축하자

**모든 사람이 접근 용이한 전라북도의 관광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 모두의 보편적 관광향유권 보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세계관광기구(UNWTO)가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조건과 환경에 따라 보편적 관광향유의 권리를 보장받는 ‘모두를 위한 관광(Tourism for all)’ 을 권고하고 정부 주도의 관광정책이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사회적 자본’ 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함에 따라 모두를 배려하는 전라북도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사람이 있는 관광’ 의 실현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보고서가 출간되었다.
-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이 발간한 정책브리프(제30호) ‘관광약자를 위한 전북관광의 방향과 과제’ 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 관광은 개인의 삶의 질 제고 및 행복수준 결정의 중요변수이며, 이에 따라 어떠한 제약도 없이 모든 사람이 관광자원과 시설 등의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 관광약자를 위한 전라북도 관광환경과 관련된 실천과제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의 보편적인 관광향유권 영위를 도모하고 국가가 추구하는 포용적 복지국가와 사람이 있는 관광정책이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전라북도는 지난 2017년 9월 『전라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근거하여 5개년(2019년~2023년) 실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영위 권리를 보장하고 ‘사람’이라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과제를 발굴하여 전라북도가 추구하는 ‘여행체험 1번지’ 조성의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 정책브리프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장애를 지닌 모든 사람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인식 강화를 바탕으로 평등과 사회적 포용의 원칙을 촉진하는 거점이 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조건에서 함께 누리는 환경을 마련하여 ‘모두를 위한 체험관광거점’으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 이를 위해서 전라북도의 정책목표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여행체험 1번지, 전북관광’으로 제시하고 관광약자를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지닌 사람 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관광객, 아동관광객 등 관광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주장한다.

○ 정책브리프는 ▲서비스 및 인식개선 ▲관광인프라 개선 ▲정보접근성 강화 ▲맞춤형콘텐츠 확충 등 4대 분야와 관련된 14개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제시하였으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관광권리를 보장하는 실천 행동을 독려하면서 전라북도 관광정책의 방향성을 ‘사회관광(Social tourism)’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주장한다.

(1) 전라북도 관광약자 관광활동 실태조사 및 관광종사자 인식개선 등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제약요인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관광활동 직접 서비스 제공주체인 종사자와 14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한 계층이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상호 간 문화와 생활을 이해하는 문화를 확산하여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 조성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2) 또한, 열린 관광지 조성확대 및 전라북도 관광약자 지원센터 구축 등을 통하여 관광약자의 이동권 증진 및 정보접근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점자홍보물 제작, 수어동영상 배포 등 관광객의 관광시설 이용 및 접근에 대한 장애요소 제거와 관련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3) 장애물 없는 관광코스 개발, 5感 체험 관광콘텐츠 등 모든 계층과 집단을 고려한 콘텐츠를 확충하여 전라북도 관광정책의 수혜자가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건과 기반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기회에 평등권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설명한다.

- 김형오 연구위원(연구책임)은 “선행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개인이 직면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배제와 차별, 편견 등 사회적 관계의 결과임에 따라 특정 계층 또는 집단에 국한된 관광환경이 아니라 모두가 관광활동을 위한 제약요소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설명한다.
- 이어서 “관광약자를 단순히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에 제약이 따르는 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관광활동은 개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필수요소임에 따라 시간적·재정적 제약요소 등도 고려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